

3시간 집단구타... 기절하자 방치

공원→공터→야산 끌고 다니며 10대 12명이 동네 중학생 폭행

행인이 발견 병원 옮겨 목숨 구해

“인사를 하지 않고 췌려 봤다”며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생 1명을 불러 내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한 10대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모(19·광주 모 중학교 중퇴)군 등 3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폭력에 가담한 광주 K고 1년 박모(17)군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40분께 일행인 광주 S공고 1년 서모(17)군에게 같은 동네에 사는 광주 모 중학교 3년 P(15)군을 광주시 서구 쌍촌동 S아파트 내 상약공원으로 데려오게 했다. P군의 집은 상약공원에서 직선거리로 1km 떨어져 있다. 동네 친구이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P군을 불러낸 뒤 주먹과 발로 P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번갈아가면서 수차례 때렸다. 동네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자 이군 등은 700여m 떨어진 옛 기부부대 인

근 공터로 P군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 곳에서 또 P군을 집단 폭행한 뒤 다시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세 번째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코피를 쏟던 P군이 자신의 옷을 벗어 피를 닦자 이들은 자신들이 피우던 담뱃재를 P군의 등에 털어 두 세 곳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특히 길이 1m, 지름 6cm의 나무 지지대로 쓰이는 각목 2개로 P군의 머리 등을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집단 폭행은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고, 우연히 이 현장을 지나던 등산객 박모(45)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서아 이들의 폭행은 멈췄다. P군에게

약물 같은 3시간이었다. 현재 P군은 머리와 코, 치아, 간 등을 크게 다쳐 광주 S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은 P군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던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이군은 경찰에서 “P군이 평소 우리를 무시하듯 췌려 봤다. 인사를 잘 하지 않아 화가 났었다”며 “흔내주려고 후배를 시켜 P군을 불러 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동네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노인 성폭행 저항하자 살해

‘강도 살인’ 60대 男 검거

경찰, 연쇄살인 여부 조사

화순경찰은 3일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해한 이모(60)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화순군 능주면 A(여·65)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 저항하자 온몸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 18일 밤 9시께 인천시 서구 삼곡동 모 상가에 들어가 금품 85만원을 훔친 상가로 이 같은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07년 1월께 화순군 능주면 모 벽골공장 내 방안에 숨진 채 발견된 B(여·81)씨의 살인사건에 이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살된 A씨와 B씨의 집은 직선거리로 1km 미만이고, 그 중간지점에 용의자 이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범인이 문을 잡고 나갔고 피해 여성의 옷이 벗겨져 있었던 점 등에 주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나원침 (7820) 김장동



보험사기 90%가 ‘車보험’

광주경찰, 70일간 157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0일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57명의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범이 142명(90.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의료 보험사기범 12명(7.6%), 생명·상해보험 사기범 3명(2%)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택시운전기사가 35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생 9명(5.7%), 조직폭력배 4명(2.5%) 등의 순이었다. /이종행 기자 glee@kwangju.co.kr

이번 단속으로 드러난 피해금액은 60억 원에 이른다. 지난달 19일에는 ‘유령 입원환자’를 만들어 의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광주 모 요양병원 조모(47) 원장 등 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을 전문수사팀으로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lee@kwangju.co.kr



하천 환경 정화

환경의 날을 이틀 앞 둔 3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 2교 주변 하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과 영산강환경지킴이, 한국철도공사, 31사단 장병 등 150여명이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짜 비아그라 판친다

1억5천만원 쟁건 5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3일 중국산 ‘짜퐁’ 발기부전 치료제(사진)를 진품으로 속여 판 정모(41)씨 등 전남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2007년 12월부터 목포시 상동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비아그라나 씨알리스를 미국산 진품이라고 속여 20알 들어 한 통에 15만~20만원씩 받아 1억5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외에 오모(45)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4명도 여수, 광양 등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최음제를 팔아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경호기자 choi@kwangju.co.kr



음주 사고 화물차 기사 체포

광주동부경찰은 3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대학생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김모(48)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놀이터 인근 이면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6%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김모(22)씨를 추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태계 파손 주범 염소를 소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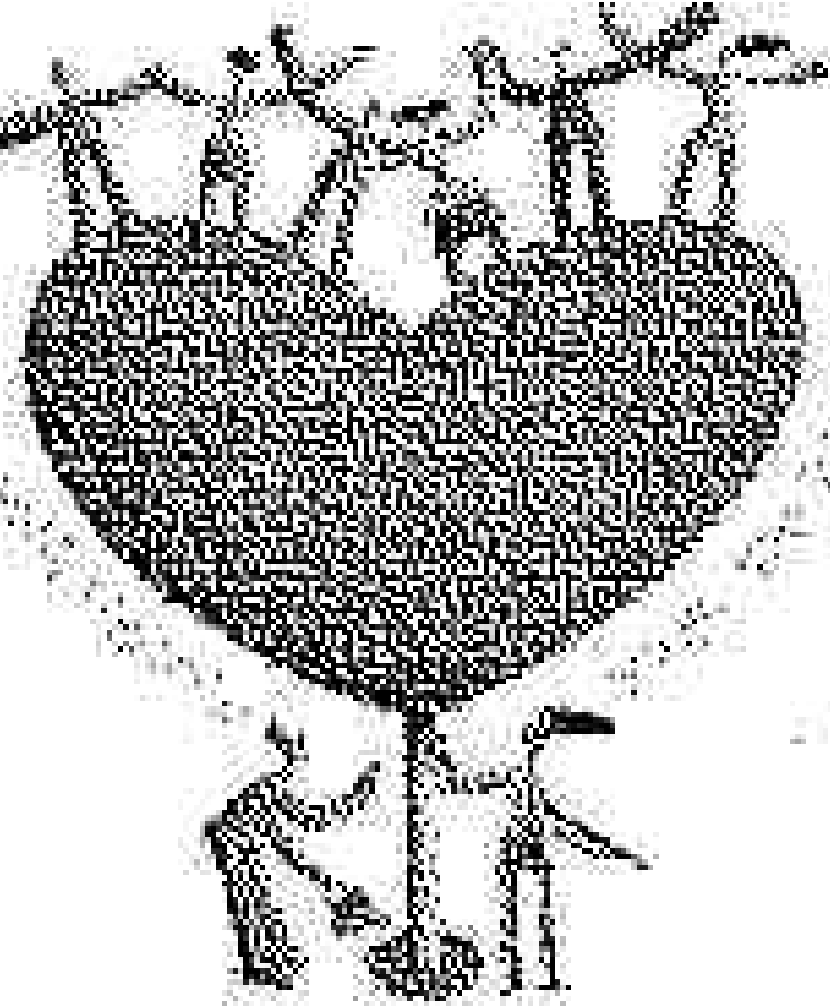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섬 지역 생태계 파손의 주범인 염소와 토끼 등 야생 동물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 눈길. ○국립공원공단은 3일 섬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염소떼 등 방목가축 포획 사업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소탕작업에 돌입. ○그동안 전남지역은 주민들이 섬에 풀어놓은 염소떼들이 대개 야생화 밑에 따라 나무뿌리와 겹질을 갉아먹는 등 섬 생태계 황폐화의 주범으로 등장.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섬지역 염소 등의 급증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다 오염시킨 조선소 7곳 적발

목포해양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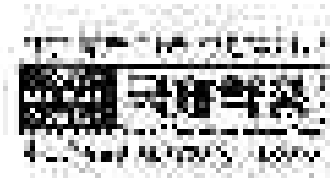
목포해양경찰서는 비유 질감을 위해 해양 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목포·무안·영암지역 중·소형 조선업체 등 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폐유 등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켰고, 비산(飛散)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막 시설 미비, 폐기물 미분리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무안의 FRP조선, 목포 삼진산단의 고려조선, 금성조선, 남양조선, 미원조선, 영암 대불산단의 KS야나세 산업, (주)우창가스 등 7개 중·소형 조선업체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동자 품어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영광회 - 새 마음으로 큰 눈동자 품어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
영광회 후원금